

(1) 인문 분야의 글 읽기\_나는 누구인가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세 가지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결된다고 하였다.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 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케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쳤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런 의미 있고 아름다움도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內省)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흄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식의 웅덩생 속에 들어 있는 ‘나’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런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달 과정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 ②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몇몇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 ③ 특정 연구 방법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철학적 논제로서 ‘나’가 갖추지 못한 자격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다.
- ⑤ 철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의 변천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존재를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대상이다.
- ② ‘우주’와 ‘자연’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이다.
- ③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탐구 대상으로서의 ‘나’는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대상이다.
- ⑤ ‘나’는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한 탐구를 의미 있게 만드는 대상이다.

3.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적 논제의 특징에 따라 중요도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 ② 신에 대한 탐구는 ‘나’를 탐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기원전부터 계속된 연구를 통해 ‘나’에 대한 궁극적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주변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마음의 눈으로 꾸준히 응시할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 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각 철학자들의 인식 및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트: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다.
- ② 소크라테스: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 ③ 탈레스: 천체의 운행과 자연의 변화 역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흄: ‘나’라는 존재의 경험이 곧 ‘나’의 본질 자체이다.
- ⑤ 사르트르: 본질로서의 ‘나’를 찾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②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은 방법이다.
- ③ 사적인 존재인 ‘나’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이다.
- ④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다.
- ⑤ 여러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6. 밑줄 친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흄’의 입장에서 내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마룻바닥의 모습뿐이다.
- ② ‘흄’의 입장에서 마룻바닥의 모습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불과하다.
- ③ ‘흄’의 입장에서 기차의 속도는 본질로서의 ‘나’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중 하나이다.
- ④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마룻바닥은 본질로서의 ‘나’를 찾아낼 수 있는 의식의 웅덩생이다.
- ⑤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기차의 속도를 모른다는 것은 곧 ‘나’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7. ㉢~㉤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는
- ②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 ③ ㉤: 위를 향하여 올려 보다가
- ④ ㉤: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났다고
- ⑤ ㉤: 지적하여 밝혀낼

8. 글쓴이가 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쓰고, 글쓴이가 말한 이유를 이 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9~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물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 A와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9.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조건
- ② '나'와 '너'가 맺는 관계의 특징
- ③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의 예
- ④ '나'와 '그것'이 맺는 관계의 특징
- ⑤ '나'의 인식과 '너'의 인식이 대립하는 예

**10. 이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레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
- ③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태도만으로도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나'와 '너'가 맺는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그것'과 '그것'의 관계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 ⑤ '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 관계는 유일하며 무한한 관계가 될 수 있다.

**11.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버(Buber, Martin)'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 ② '나'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 ③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나'의 특징 역시 달리 인식될 수 있다.
- ④ '나'와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유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⑤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각자 주체와 객체로서 올바른 관계 맺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12.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원 A가 집에서 맺는 아이와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맺는 차등의 관계이다.
- ② 직원 A가 집에서 맺는 아이와의 관계는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맺는 관계이다.
- ③ 직원 A가 회사 동료들과 맺는 업무적 관계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맺는 관계이다.
- ④ 직원 A가 회사 동료들과 맺는 업무적 관계는 동격의 주체가 대등하게 맺는 관계이다.
- ⑤ 직원 A가 회사 동료들과 맺는 업무적 관계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띠는 유일한 관계이다.

**13. ㉠과 ㉡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지식
- ② ㉠: '나'를 알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지식
- ③ ㉡: 좁은 의미의 '지식' 이상의 지식
- ④ ㉡: 아무나 관찰하고 연구할 수 없는 지식
- ⑤ ㉡: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유발하는 지식

**14. ㉢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을 대하는 '나'는 진정한 나인가?
- ②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인가?
- ③ 상대방과 나는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인가?
- ④ 상대방과 나는 '인간'에 대해 학습한 존재인가?
- ⑤ 상대방은 나의 관계는 대체될 수 있는 관계인가?

**15.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존재할
- ② ㉣: 드러낸다
- ③ ㉣: 피상적인
- ④ ㉣: 나타난다
- ⑤ ㉣: 나아가다

**16.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를 지칭하는 2어절 표현 두 가지를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나)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內省)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흄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식의 웅덩이 속에 들어 있는 '나'란 조각들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라)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마)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바)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7.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경험한 것이 곧 '나'의 본질이다.
- ② '너'와 '그것'은 같은 자격과 지위를 지닌다.
- ③ 모든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주체는 '나'이다.
- ④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뿐이다.
- ⑤ '나'의 본질 파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18. 이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의미, 나의 발견  
-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존재
- ② 나를 이루는 근본  
- 인간에 대한 이해
- ③ 나에 대한 다른 생각  
- 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상의 등장
- ④ 커다란 우주와 작은 인간  
- 자연, 우주, 신들의 탐구가 먼저 시작된 까닭
- 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19. 밑줄 친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 ② ㉡: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
- ③ ㉢: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

20.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를 맺을 때의 '나'를 설명하는 표현 세 가지를 (바)에서 찾아 쓰시오.

정답과  
해설

4.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1) 인문 분야의 글 읽기나누는 누구인가

형성 평가

- 1. ④ 2. ③ 3. ① 4. ④ 5. ⑤ 6. ④
- 7. ④ 8. '나', 다른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9. ⑤ 10. ②
-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 16. '물건의 소유자', '하나의 기능인' 17. ③
- 18. ① 19. ① 20. '인격 전체', '유일한 존재', '진정한 나'

1. 이 글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을 밝힌 글이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설명한다. 또한 '나'라는 논제가 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논제인지를 드러내고자 '칸트' 외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 분야를 설명한다.

2. 글쓴이는 '나'라는 대상이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거나 탐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3. 글쓴이는 인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논제에 따라 중요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신에 대한 탐구는 '나'를 탐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여전히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나'만 들여다보아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글쓴이는 기원전 5세기 철학자들의 '인간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4.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말한 것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곧 내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나'는 아니라는 '흠'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경험이 '나'의 본질 자체라는 ④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5. 내성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옛날부터 학자들은 온전히 사적인 존재인 '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흠', '사르트르' 등 여러 철학자들에게 본질로서의 '나'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았다. 이 글에서는 내성의 방법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

법이지 관찰 대상으로서의 '나' 주변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6. 글쓴이는 내성의 방법으로는 본질로서의 '나'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달리는 기차에서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④에서 마룻바닥을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는 의식의 동달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성을 통해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잘못된 해석이다.

7. ㉠의 '그치다'는 문맥상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 글쓴이는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나'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 없다면 다른 존재의 가치를 느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주체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9. '나'와 '너'의 관계는 글쓴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이며, 유일무이한 주체와 주체가 맞는, 진정한 '나'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 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⑤와 같은 대립적인 측면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 글쓴이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가 관계를 맺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그 만남의 결과도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부버'는 두 존재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맞는 관계를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이를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 대등 관계로 보았다.

12. 직원 A는 직장에서 기능인으로서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집에서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관계는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맞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며 차등의 관계이다. 따라서 '그것'의 대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집에서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대등 관계이다. 여기에서 '너'의 존재는 대체 불가능하다.

13. 글쓴이는 '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즉, 두 지식 자

체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라고 설명하는 ㉔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14. ㉔은 독자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의도가 담긴 부분이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㉔는 '인간'이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학습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없다.

15. 이 문장에서 ㉔ '진행하다'는 문맥상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6. '그것'과의 관계가 보이는 특징을 설명하는 문단은 3문단이다. 3문단에서 글쓴이는 '그것'과 관계를 맺은 '나'를 '물건의 소유자', '하나의 기능인' 등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가)에서 우주, 자연, 신 등의 가치를 이해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이 글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글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나'는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의미가 표제와 부제에 담겨야 한다. ㉔의 '인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이고, ㉔ '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상의 등장'은 이 글에서 잠깐 언급되었을 뿐인 소재이다. ㉔는 '나'라는 논제가 대두되기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내용이며, ㉔는 이 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다.

19.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뜻과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이라는 뜻이 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

20.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너'와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때의 '나'는 '인격 전체', '유일한 존재', '진정한 나' 등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